

프랑스 화가 눈에 비친 우리의 본모습

한불수교 130주년...광주 프랑스문화원 '클로드 게나르가 그리는 한국 이야기'展



두차례 한국방문서 만난 사람
잡지·광고용지에 썩썩 그린
31일까지 작품 30여점 전시

25·26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
상송 가수 무릉 초청 무료 공연
'몸이 입는 가구' 앙코르전도



무용을 하는 여인 등 외국인 작가가 본 한국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 놓여 있었다.

클로드 게나르는 화가이자 모험가로 불린다. 젊었을 때 링 위에서 복서로 활동하기도 했고 국립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아프리카서 20여년간 미술을 가르친 이력이 있다. 전세계를 여행하는 그는 지난 2014년 파리 한국 문화원을 우연히 방문한 후 '한국'행을 결심했다.

최승은 원장은 "한국사람들이 보기엔 특별한 게 없는 작품 같지만 문화원을 찾는 외국인들은 '진짜 한국사람들은 이렇다'는 말을 자주하곤 한다"고 전시를 소개했다.

문화원은 이외에도 프랑스 상송뮤지션 크리스 무롱(Chris Mouron)을 초청해 '상송 명곡을 노래하다' 공연을 마련했다. 오는 25·26일 오후 8시 광주 홀리데이인호텔.

에디트 피아프를 잇는 대표 상송가수로 꼽히는 무롱은 우리 귀에 익숙한 상송 20여곡을 약 90분간 들려준다. '감상적인 군중', '장미빛 인생', '자전거', '라보엠', '사랑의 찬가' 등을 준비했다. 무료 공연, 사전예약 필수.

24일 오후 7시에는 보성문화회관에서 같은 공연이 열린다. 문의 061-850-8660, 5202.

그밖에 지난 11월 열린 '코르프 스틸(Corps de style)-몸이 입는 가구, 가구가 입는 몸' 앙코르 전시가 31일까지 홀리데이인 호텔 1층에서 진행된다. 이 전시는 프랑스 출신 젊은 사진 작가 줄리앙 스피워(31)이 가구와 신체를 이용해 찍은 '숨은 그림찾기' 형식 작품을 선보인다.

또 4~5월에는 파리 지하 모습 등을 렌즈에 담은 프랑스 사진전이 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매주 화요일(오후 4시)·수요일(오후 6시30분)마다 열리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세네-프랑스 3~4월 주제는 '역사적 사건을 통한 프랑스에서의 삶'이다. 15·16일에는 루이 14세 이야기를 다룬 '왕의 춤'이 상영된다. 무료 관람. 문의 062-527-25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광주 프랑스문화원(원장 최승은·이하 문화원)도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광주 홀리데이인호텔과 연계해 더 넓은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문화원에서 열리는 '클로드 게나르가 그리는 한국이야기 :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알아보다' 전시는 외국인 눈을 통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다.

9일 오전 방문한 문화원 내부 벽에는 A4용지 크기 작품 50여점이 걸려 있었다. 프랑스 출신 화가 클로드 게나르(67·Claude Guenard)가 2014년과 2015년 두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그린 작품들이다. 유니폼을 입은 회사 여직원,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인, 시장 상인 등 작품을 살펴보면 그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는 프랑스 화가의 '한국방문기'다.

재미있는 점은 작품을 그린 소재가 모두 잡지이거나 광고용지다. 지면 전체를 인크로 덮지 않고 싸인펜으로 썩썩 그리듯 가벼운 표현 기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광고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렇다고 작품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대중 그린 것 처럼 보이지만 반복 주름, 얼굴 표정 등이 살아있다. 마치 캐리커처를 보는 듯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광고 내용과 등장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지하철역에서나 불법한 '당신의 피부자극이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가 써진 피부과 전단지에는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다'를 제목으로 단 푸젠 음식점 소개 광고에는 스마트폰을 든 여고생 2명을 그렸다. 피로회복제 광고지에는 지친 회사원 얼굴을 묘사했다. 또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도 곳곳에서 보인다.

서울 학생 유행패션부터 문화원 수강생들, 한국



상송가수 크리스 무롱



천경자 '원' 17억원 낙찰...자체 최고가 기록

12억원 '초원II' 7년만에 경신

지난해 작고한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17억원에 판매되며 자체 최고가 기록을 7년 만에 경신했다.

9일 오후 K옥션 서울 강남 본사에서 열린 봄 경매에서 천 화백의 '원(圓·사진)'이 열띤 경합 끝에 현장 응찰자에게 17억원에 낙찰됐다. 애초 추정가는 13억~20억원이었다.

천 화백의 작품 중 기존 경매 최고가 작품은

2009년 K옥션이 판매한 '초원II'로, 낙찰가는 12억원이었다.

이날 경매 출품작인 '원'은 2007년 K옥션 가을 경매에서 11억5000만원에 팔렸던 작품이다. 1962년작인 이 그림은 붓질을 여러 번 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스텔 톤이 돋보여 천 화백 특유의 색채 감각을 보여준다.

작년 10월 천 화백 사망이 확인된 후 미술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천 화백의 작품 가격이 올라갈 지에도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연합뉴스

아카펠라로 듣는 '임을 위한 행진곡'

'The Present' 첫 앨범...내일 문화전당 쇼케이스

아카펠라로 듣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느낌일까?

아카펠라 그룹 'The Present' 가 첫 앨범 '선물'을 발매했다.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카펠라 그룹 'The Present'는 지난해 8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보컬아시아페스티벌 아시아권 경연대회에서 2등을 수상한 실력파 단체다. 멤버는 이화빈·유효임·한지은·정수빈·최원석·김용석씨다.

이번 음반에는 모두 6곡이 실렸다. '임을 위한 행진곡', '빛고를 아리랑' 등 광주를 대표하는 노래와 'Moonlight', 'Together in harmony' 등

자작곡을 함께 담았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의 영어번안곡인 'Marching for our Beloved'는 'The Present'가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아카펠라 네트워크 '보컬 아시아'를 통해 해외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음반 발매를 기념하는 쇼케이스도 열린다.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3에서 열리는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앨범 수록곡과 함께 국내 최고의 아카펠라 그룹 'The Solists'와 합동 공연도 준비돼 있다. 문의 010-6648-1005. /김미은기자 mekim@



아카펠라 그룹 'The Present'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충장점 금남로 4가 공영앞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 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